



1999 미국 소아마취학회 학술회의

● 일시 : 1999년 2월18일~21일 ● 장소 : 미국 라스베가스

2월18일부터 4일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99년 미국 소아마취학회의 학술대회에 한국인으로는 외롭게 혼자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임상적인 면에 치중한 논문과 특이한 증례를 보고하는 포스터 내용들이 많았는데 내가 발표한 포스터에 시선이 모여져 기분이 좋았다. 논문발표 때는 다소 긴장되었지만 발표 후 질문·답변까지 무사히 넘겼다. 이번 대회 참가를 계기로 나는 '환자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것' 만이 국제사회에서 남는 길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金 熹 秀
(서울대 의대 마취과 교수)

학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을 출발하는 날은 설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다. 전날 설날 차례를 한바탕 지내고 설거지며 집안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부랴부랴 짐을 싸서 집을 나섰다. 해외학회에서 처음으로 논문을 발표할 것을 생각하니 날씨도 음산한데 영 마음이 편치 않았다. 기내에서는 학술회의 개최지인 라스베가스의 현지 시간에 맞추어 잠을 잤는데 마침 옆 좌석이 비어서 썩 편안한 여행

이었다.

낮에 도착한 라스베가스는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현란한 불빛이나 왁자지껄한 거리는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미국의 사막의 도시같았다. 혼자서 묵는 호텔이라 여비를 아끼기 위해 회의장에서 약 15분 정도 거리의 호텔을 예약하였다. 그래서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회의장의 위치를 파악해야 했다. 회의장은 상당히 근사한 리조트여서 금방 찾을 수 있었다.

가방 하나 들고 외롭게 참가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달랑 가방만 하나 메고 출발한 거의 배낭여행 수준의 여행이었으므로 스스로 할 일을 찾아야 했다. 서울에서 가져간 여행정보지를 참고삼아 거리를 이리 저리 걷기로 했다. 이것이 도착하던 날이었다. 다음날은 학회의 등록일이었는데, 등록 전에 미국 소아

마취학회 이사회의 모임이 있었다.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지라 포스터 발표를 위한 번호를 확인하고 발표할 장소를 확인하고 놓여있는 여러 개의 brochure를 얻고 사전 등록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나니 학회에 참가하게 된 것이 실감되었다. 저녁에는 학회가 있는 Desert Inn Resort의 본관에서 저녁 만찬이 있었다. 한국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나를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그런 저녁식사는 약간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일단 참석은 하기로 하였다. 참석은 했지만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분위기에 잘 맞지 않았다. 외국인에게 친절할 것이라는 선입견에 약간 타격을 가한 일이었다. 그래서 소화도 잘 되지 않는 저녁만 먹고 나와버렸다.

드디어 학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 되었다. 아침 7시부터 간단한 식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전날 저녁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어서 편했다. 발표할 포스터를 지정된 장소에 붙여놓았다. 약간 늦게 도착을 한 관계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붙이지 않은 포스터 패널이 많이 보였다. 포스터는 다양한 크기와 아주 근사한 형태의 것들도 참 많았다. 정성을 들인 점이 눈에 띄는 경우도 많아 보였다. 하지만 평범한 것들도 꽤 많았다. 어쨌든 포스터를 만드는 점에서 한수 배울만한 것들이 많아서 좋았다. 내용도 다양했다. 물론 다른 해외학회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근래의 학회지 등의 경향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번 소아마취학회는 상당히 임상적인 면에 치중한 논문이 많은 것 같았다. 특이한 증례를 보고하는 포스터 내용들과 아주 실질적인 연구를 다룬

내용이 많았다. 반면 생화학적이거나 분자화학적 실험을 바탕으로 한 임상적인 논문은 적은 듯 싶었다. 이 점은 상당히 맘에 드는 부분이었다. 포스터 하나 하나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었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도 실질적인 것들이 마구 머리에 떠올랐으니 말이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붙여놓은 포스터에 관심을 갖는지 얼핏보니 두서너명 정도가 내 포스터 앞에 있었고 무언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아마도 내일 발표 후 질문이 생길 것 같아 약간은 걱정이 되면서도 내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반갑기도 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역만리에서 그나마 내 것에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이 한편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기도 했다.

오전 중에 있었던 특강은 주로 소아마취시 만날 수 있는 아주 극적인 상태에 대한 것들이었다. 이중 약간 충격적인 특강은 제3세계 소아마취였다. 거의 경험할 수 없던 것, 즉 총상 등에 관한 것들도 있었는데 참가한 마취과 의사의 일부의 경우는 상당히 진지했다. 생소하지만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심있게 들었다.

나의 포스터에 시선모아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은 각각의 특강을 들은 후에 여러개의 질문을 화면에 비춰준 후 청중의 의견을 묻는 시간이었는데 청중 개인이 질문에 대한 답을 테이블 위의 기계를 통해 번호를 누르면 약 30초 후에 각각의 번호에 대한 지지도가 백분율로 표시되어 화면에 나오고 다시 그것을 토론하는 것이었다. 상당히 빠를 뿐

만 아니라 거기에 참가한 마취과 의사들의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면 국내학회에도 도입하고 싶었다.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였다. 오후에도 역시 특강이 있었는데 어린이를 다루는 소아마취의 특성상 특히 환자를 보살피는 의사의 정성과 quality는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강의였다. 이후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실제로 수기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장소였다.

논문발표 후 질의도 받아

다음날은 필자가 발표를 하는 날이었다. 발표의 가장 끝 연재여서 발표할 내용을 계속 연습하느라 지루하기도하고 걱정도 되었다. 다른 연자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발표도 하고 질문도 했지만 많은 부분은 잘 못알아들은 채 지나가기도 했다. 다시 한번 영어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생각같아서는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 논문의 구연보다 포스터가 유리할 것 같았는데 그 당시에는 차라리 구연을 할 걸하는 후회도 들었다. 어쨌든 시간은 흘러 내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다. 어느 정도는 외워버린 논문발표 내용을 거의 일사천리로 하고 나니 청중들은 나의 영어실력을 알아버린 듯 질문을 하지 않았다. 약간은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 섭섭하기도 했다. 무시당한 것 같기도 해서. 발표가 끝나고 한숨 돌리고 있는 사이 미주리주의 조셉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해왔다. 아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서로 내용을 이해하는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학회에 온 느낌을 만끽하면

서 대화를 주고 받았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학회에 참석을 하는 것이 구나하고 생각했다. 오전 중에 소아마취에서는 거의 대부분적인 그레고리의 awards presentation이 있었다. 말로만 듣던 그 사람을 직접 보니 뭐랄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듯한 느낌이었다.

학술회의 마지막날은 일요일이었다. 우리 병원처럼 어린이병원이 분리되어있는 경우도 인력이 모자라서 수술 후 통증관리는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외국의 경우는 수술 전후의 통증관리에 대해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체의학의 거센 물결이 소아마취에까지 영향을 주어 통증관리와 더불어 하나의 세션을 이루었다. 미국이란 곳은 대체의학이란 것이 생활 깊숙이 침투한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개인적으로는 나도 대체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일요일 아침 강의는 매우 유익했다. 그리고는 아쉬운 학회가 마무리되고 있었다.

이번 학회는 나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것은 아마도 완전히 혼자 참석학 학회였기 때문일 것 같다. 왜냐하면 나 잘났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알아주는 이 없고 그저 흔한 소아마취과 의사임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환자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꾸준히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국제 사회에서 살아 남는 길이며, 한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영어를 잘 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었다. 돌아오는 길은 꽤 피곤하고 긴 길이었지만 일주일동안 엄마를 보고 싶어했을 주현이를 생각하기엔 짧은 시간이었다. ⑤7